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Column

교육도시 인천에 바란다

Interview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과의 만남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IDI 소식



인발연, 북경에 연구교류 거점기관 확보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교 회의실...

Zoom 人



교육자로 다시 보는 장면 박사
이번 호에서는 인천에서 성장한 교육자이면서 정치가인 장면(張勉) 박사를...

Zoom INcheon



지식을 넘어 지혜를 건지는 곳_인천어린이과학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경제가 나쁜 것...

도시동향



'큰 학교 안의 작은 학교'_스웨덴 푸투름 학교
스웨덴 스톡홀름 북서쪽 50킬로미터에 위치한 Hringbo 지역의 푸...

IDI 연구



인천시 중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발전방안
교육이 발전하면 그것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발전은 교육에 대...

인천지표

구분	인구	면적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면적증가율	인구증가율	면적증가율
인천광역시	2,910,000	1,062.0	2,739.0	0.1%	0.1%	0.1%	0.1%
중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남동구	100,000	10.0	10,000.0	0.1%	0.1%	0.1%	0.1%

인천의 교육수준 현황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이다. 실제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

교육도시 인천에 바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교육도시 인천에 바란다

-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시민교육의 메트로 도약하기 위하여

배을규 인하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세계 각국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과 성장의 도모,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인, 사회,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의 능력과 품성 - 인적 자본 -과 사회 연대와 결속 강화에 필요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 사회적 자본 -의 형성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과거 학교교육과 학교이후교육을 연결하여 불평등한 교육체제를 개혁하고자 출발하였던 순수 학습 위주의 평생교육에서 이제는 개별 지역 차원의 고용, 복지, 학습, 문화 문제들을 서로 연계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인적자원개발 지향의 평생학습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 사회, 교육, 복지에 관한 글로벌 정책과 연구,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인 UNESCO, OECD, EU 등이 표방하는 평생학습전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다. 우선 UNESCO는 과거 인간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문해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주로 하는 인문주의교육 차원의 평생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UNESCO는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학교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평생에 걸친 개선, 개발, 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 기존 학교교육 중심의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평생 동안의 인적자원개발이 강조되는 평생학습전략을 수용 전파하고 있다. 한편 OECD는 과거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제본위의 학교교육과 직장교육을 강조한 초기의 '순환교육' 전략을 수정하여, 사회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이전 국가단위의 평생학습보다는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지리적 여건의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주도의 개발과 지역 사회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차원의 평생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식기반사회로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사회로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 결속력 강화, 시민의 적극적 참여, 고용가능성 증진, 경제적 경쟁력 증진이라는 지역적 평생학습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로의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개발 지향의 평생학습 전략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 사회 개발과 지역 주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제로 전 세계적으로 적극 수용·실행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도시 개발과 확장에 따른 사회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복지·고용·여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 약화로 지역 인재 유출이 확대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 교육의 인적자원개발 지향의 평생학습 전략은 지역 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산업, 고용,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 사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활용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인천시의 고유한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평생학습전략을 이념으로 삼더라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목표는 인천 지역과 시민의 특수한 상황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 교육의 인적자원개발 지향의 평생학습전략 추진 전략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특화를 위한 선택과 집종의 전략이 요청된다. 인천시의 전체 도시발전계획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천시청과 구청 그리고 시교육청은 인문교양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거나 중앙정부와 중앙관계기관의 시책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세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평생학습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천시 특유의

전략적 특화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인천시 발전계획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전략을 연동시키고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려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평생학습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교육을 학교교육에만 한정하는 근시안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인천 시민 전체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정책과 지역 우수인력양성 정책, 지역 문화복지산업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 운영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지역 행정 유관 부서에 개별적으로 하달되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정책,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의 고용지원 및 산업인력양성 정책,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여성 및 보육지원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등 각 부처별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과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을 방지하여 인천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평생학습 활동은 지역 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교육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시청과 시교육청 소수 전문가에 의한 상명하달식 정책 수립과 시행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시 전체에 산재한 지역 기관들, 즉 기초지자체, 교육훈련기관, 문화 및 복지기관, 고용주, 노동기관, NGO 등의 다양한 기관들의 지역 교육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결여되어왔다. 시민 개인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행정, 노동,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행정 부처와 민간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의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전문 역량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2008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광역 단위 지자체 주도로 지역 교육 문제와 지역 사회 문제를 학습·고용·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가정주부, 노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교육과 여가교육을 제공하는 '순수한' 교육을 지원하는 시 산하 기관일 것이라는 인천시 지도층 인사의 인식의 한계로 개정 평생교육법시행의 취지와 의의가 무색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은 명실공히 시민의 학습·고용·복지·문화·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기관으로서, 인천시의 교육 문제와 사회 문제를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 기관의 구성원도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 성인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로 선발, 충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유지 전략이다. 지역의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실질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개인, 집단, 지역이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획득하고 이는 지식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다시금 학력과 소득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관내 지역 주민들의 학력과 소득 차이, 지역 주거 환경, 지역 주민과 집단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최근 인천시는 인구 증가, 고령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증가, 지역 개발로 인한 지역간 갈등, 학교 학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시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 통합, 경제적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지향의 평생학습 활동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제, 수준,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인천이 교육의 도시로서, 평생학습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술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평생학습 전략 추진과 함께 해결해야 선결 과제들이 있다. 우선 지역의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역 평생학습 발전계획도 함께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협력하고, 지역의 유관 기관, 시설, 단체 연계 하에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실행,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시의 교육, 산업, 고용, 문화, 복지 등 각 부문별로 개별적인 통계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데, 지역 사회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지역 평생학습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지역평생학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천시는 지역 평생학습을 관장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 시청,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구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기과 등이 조재하느데 사업과 프로그램의 중보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정보 공유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시청 주도의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분과조직을 설치하여, 평생학습종합계획수립, 사업 기획 및 평가, 연구 및 연수기능,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와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다문화가정지원,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인천시의 평생학습 유관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천시는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기업 및 대학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대학 출신자의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의 우선 채용 유도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 연계를 종업원과 학생들의 연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토록 한다. 다섯째,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역량(의사표현, 리더십, 토론기술, 시간관리, 정보관리 능력) 개발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와 특별활동에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교 교원들에게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전문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생애설계 및 개발과 평생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는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퇴직 교원을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상담자 내지는 교육자로 개발 활용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우수한 교육시설을 평생직업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일곱째, 인천시는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상담서비스와 평생학습경비 지원 그리고 여성교육훈련 및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청, 교육청, 구청 등 지역 평생학습 유관 기관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이 아직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지역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대상별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평생학습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며, 인천시 산하 유관기관에 지역 평생학습 전문인력 특별 채용 및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 운영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과 성장의 도모,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인, 사회,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의 능력과 품성 - 인적 자본 -과 사회 연대와 결속 강화에 필요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 사회적 자본 -의 형성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상식적인 학교가 진정한 혁신학교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상식적인 학교’가 진정한 혁신학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혁신학교, ‘보평초등학교’를 찾았다. 어떻게 운영하면 혁신학교가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예쁜 건물이긴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초등학교인데 무엇을 혁신했을까. 서길원 교장을 만나 그 이유를 간단히 들어보고,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혁신학교란 무엇입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면 거창하게 받아들이는데, 쉽게 말해 ‘상식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화 되어 있는 학교를, 학교의 자리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제도를 통해 무엇을 하기보다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라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성찰적인 참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결국은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변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혁신학교를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서 갑자기 싹 달라지고, 확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성찰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습관화 되어 오랫동안 관행이나 관습처럼 행해 왔던 것들, 학교 곳곳에 난무한 간판 교육이나 유행으로 교육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

Q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먼저 깨야 하는 관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간을 추구하는가처럼 추구하고 있는 상들이 없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추구는 인간상이 있고, 선생님들도 공유하는, 비전적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면 영어에 매달리고, 세계 정보화 교육이 유망하다 하면 정보에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학교가 들쭉거리기만 합니다. 비전과 철학이 없으니 교장선생님들은 당선들이 하고 싶은 특색사업, 역점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색사업이 강화되면 교육과정은 죽고, 비전과의 소통이 안되고, 교육과정과 수업이 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국정교과서 진도 나가기에 바쁘고, 이렇게 접합지점없이 교사의 양심만 믿은 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교실은 개인주의, 교실주의에 빠져있고, 교사들의 협력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질적 성장이 안되는 것이죠. 학교의 교육과정은 장부에 불과합니다. 수업방법과 기술만 존재한 채 소통적 기제 없이 진도와 평가만이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셈입니다. 집단적 사고를 통한 콘텐츠가 축적되게끔 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인위적 사업을 없애고, 통제로 하는 수업, 테크닉으로 하는 수업, 또 진도 중심적이고 일방적 지시가 존재하는 이러한 기본적 관행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지시어로 일관하는 명령적 구조와 교실주의, 개인주의에 빠진 학교 문화, 학생들이 공적 의식 없이 경쟁적으로 가다 보니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복원시키는 작업, 즉, 경계를 바로 세우고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혁신학교 보평초등학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대로 문화적인 부분, 경제와 존중의 문화 만들기를 들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상호존중, 솔선수범, 사제동행 이 세가지를 강조합니다. 아주 진부하고 전통적인 요구사항이지만 배움의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독서하기가 아니라 사제동행 독서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테이블 중앙에 선생님이 함께 앉아 20분간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존중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동료교사들끼리, 교직원끼리의 존중도 강조합니다. 그래야 동료애가 되고 나아가 집단지성으로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협동학습은 얘기하고 있는데, 상호존중 문화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의 스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호존중의 문화입니다. 또 한 가지, 경쟁적 기제가 아닌 성장적 기제를 중시합니다. 선생님들 수업도 공동수업하기, 팀칭해보기, 프로젝트 학습하기, 교육자료 개발하기 등의 활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팀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미니스쿨 세 동을 만들었습니다. 미니스쿨체제에는 각 수석부장을 두고, 수업과정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직원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회나 학예회를 따로 하게 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만 치는 아이를 만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뜰리에 발표를 통해 한 학기에 한번, 모든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니스쿨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게 할 정도로 지적 성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적 활동에서는 특색사업이나 역점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여타 학교에서는 체험행사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를 체계화시켜서 연간 학년별, 단계별 과정을 두고, 사전 활동 네 시간, 체험학습 네 시간, 사후활동 네 시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결과물을 내놓게 하고, 1년에 4회 책자를 만듭니다. 도달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모든 아이들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 편성 원리 중의 하나는 선택과 협력입니다. 학습의 다양화 원리를 사용하고, 학습 선택권을 제공해 예술적 표현 활동을 강조하면서 감성적인 부분을 고양하고 자기존재감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Q 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한 그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법인 만큼 초기에는 선생님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도 효율적인데, 새로운 방식이 더 교육적이라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는 식의 반발이었는데, 당장 아침독서하기 평가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하니 교육과정 개발이나 행사기획 등의 업무가 큰 부담이어서 그렇지 선생님들의 반응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힘든 학교지만 보람있고 많은 것을 배운다'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제안이나 의견은 2/3가 되어질 때까지는 새로운 시작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동의를 얻고 내면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2/3가 넘으면 규범화 시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선생님이 와도 우리학교 방침이 됩니다. 제가 없어도 전통이 유지되려면 하나씩 다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전학오는 학생이 많아서 건물을 신축할 정도니까요.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며, 소통 이전에 교사의 품성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면 민원이 적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밀착해서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Q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성공요인 내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교조 활동도 해봤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 가치있는 것을 찾기 위해 글쓰기에 열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못된 관행과 구조의 틀이 옥죄어 오더군요. 그래서 교육을 바꾸고자 길거리에서 노력한 적도 있었고, 전교조 간부가 돼서 단체교섭 등도 관여해보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바꾸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한산에 들어가 하나의 학교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등불이 되게 하리라

맘을 먹고 서원을 세우고 실천했고, 작은학교 교육연대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교육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과정에도 큰 밑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갈등과 구조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등 리더십에 관한 부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혁신학교라는 틀을 통해, 제도적 기능으로 체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교과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고, 작은학교에서 일하다 큰학교에 와서 시스템적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적으로 하나에 집중하면 돌아가지 못하는 성격이고, 경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혁신학교가 혁신학교다워지는 것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갈 생각입니다.



■ 대담 : 배 은 주(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혁신학교인 보평초등학교를 가 보았다. 어떻게 운영하면 혁신학교가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예쁜 건물이긴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초등학교인데 무엇을 혁신했을까. 서길원 교장 선생님을 만나 그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발연, 북경에 연구교류 거점기관 확보

■ 인발연 북경에 연구교류 거점기관 확보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교 회의실에서 이 대학 건축·도시계획대학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관심 대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지원 및 지식과 정보를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배 원장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공동연구, 학술세미나 개최를 제안했다. 타이지엔 학장도 '한국의 도시정책을 배우기 위해 인발연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베이징 주변 신도시 조성시 신·구도시간 균형적 발전 방안 등 5개 공동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조인식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의 도시기반 분야 정책 동향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베이징에 연구교류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장현안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달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달에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장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민배 원장과 권용오 위원장을 비롯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연구원 주요 운영실적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연구제안을 하는 등 사장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논의를 펼쳤다.



■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원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송도 파크호텔에서 열려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연구원 직제규정 개정, 2011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1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교 회의실에서 이 대학 건축·도시계획대학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관심 대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지원 및 지식·정보 교류를 해나가기로 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교육자로 다시 보는

이번 호에서는 인천에서 성장한 교육자이면서 정치가인 장면(張勉) 박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장면을 정치가로서 알고 있지만,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장면 박사는 천주교의 민족교육자였다. 여기서는 교육자로서의 장면 박사의 면모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장면 박사의 양친은 당시 모두 근대 교육과 문물을 받아들인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철저했으며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었다. 장면 박사의 가보에 의하면 선생의 집안이 천주교에 귀의하게 된 시점은 인천 이주 후이다.

장면 박사는 1899년 8월 28일 서울 삼군부의 뒷골(현 종로구 적선동) 와갯집에서 태어나 생후 15일 만에 세례를 받았다. 이후 생후 2개월 만에 당시 처음 개통된 경인선 철도편으로 부친의 근무지인 인천 전동으로 돌아와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당시 한 승려가 장면을 보고 어머니에게 “저 아이는 크게 될 아이이니 각별히 보살펴야 됩니다.”라고 했다 한다. 어린 시절 세례명 요한으로 불리던 선생이 공부보다는 장난을 좋아하자 아버지인 장기현(張基顯) 옹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고 타이르며 이름을 힘쓸 면(勉)으로 지었다고 한다.

장면 박사는 8세(1906)에 인천성당 부설 사립 박문학교에 입학하였다.

“내가 맨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인천에 있던 사립 박문학교였는데, 주로 한문(전자문, 동몽선습, 소학, 대학, 중용, 통감)을 배웠으며, 신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지리, 역사, 산술 정도였다.”

10세 되던 1908년 인천 성 바오로성당의 위델 주교에게서 견진성사를 받은 그는 박문학교를 졸업한 1912년 인천 공립 심상소학교 6학년에 편입하였고, 다음 해 고등과로 진급하여 1학년을 수료한 후, 16세 되던 1914년 수원 농림학교에 입학하였다. 원래 그는 의학강습소에 진학해 의사가 되려했으나, 연령미달로 원서를 받아주지 않아 농림학교에 지원하여 극심한 경쟁을 뚫고 최연소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1918년 그는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에 강사로 취직하여 기독교 청년회관 영어과에서 야간부로 적을 옮겨 계속 수학하였다. 노기남 대주교의 화상에 의하면 “당시 그는 국어, 수학 등 세속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쳤는데, 그 때 수원고등 농림학교를 갓 졸업한 약관의 청년이었지만, 이미 신학교에 초빙교수로 초대될 만큼 신앙이 깊고 인격이 높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3·1운동을 맞이하게 되자 당시 재학 중이던 기독교 청년회관 영어과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했다.

“전 민족이 일제의 학정에 항거하여 자주독립을 선언한 삼일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 때 덕수궁 앞에 나가서 만세를 불렀지. 그래서 일본 경찰에게 혼도 나고.....”

“이건(3·1운동) 천주님의 뜻이요, 이 거룩적 봉기를 일으키게 한 분들은 대개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독립을 찾아야 해요. 민족의 얼굴 찾아야지요.”

그가 학생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민족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교단의 방침과 달리 민족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자세,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민족의 복음화가 독립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신학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미국 유학을 결행하게 된다. 맨하튼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25년 유학길에서 돌아와 1931년 서울 해화동 소재 동성상업학교에 부임해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서무주임의 보직을 5년 반 정도 수행했고, 1936년에는 교장에 취임하여 이후 1947년 교단을 떠나기까지 17년 간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동성상업학교는 원래 1907년 서소문 일대의 상인들과 선각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민족사학인 소의학교가 그 모체로서, 1920년 소의 상업학교로 성장하였고, 1922년 천주교 교단의

장면 박사

무원을 맡기 시작하면서 남대문 상업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29년부터 봉산 예수 성심 소신학교 과정이 남대문 상업학교로 이관됨에 따라 중등과정의 신학 예비학교와 상업 전공의 일반학생 과정이 함께 운영되었다.



◀ 서무주임 시절의 장면 박사

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유명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하나는 장면 박사가 자신의 교육관에 저촉되는 언행을 일삼는 일본인 교무주임을 퇴직시킨 일이다. 당시 동성학교 교사 유홍철의 회고담에 의하면 "부임하자마자 나는 일본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쳐야 했기에 일본인 교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일본인 교무 주임은 조선사람이 어떻게 대일본 제국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냐고 장면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교장인 장면 박사는 이를 일축해 버리고 결국은 물아나가에 이르렀다. 당시 총독부 학무국의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 동성을 일본인 교육기관으로 만들려던 자였는데 그를 내쫓는 데는 당국의 압력을 염두에 둘 때 몹시 힘든 일이었는데도 결행했으니 그분의 결심과 실천이 어떠했는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른 하나는 당시 동성학교에 다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다. 당시 고 김수환 추기경이 동성 상업학교 5학년 때 '황국신민으로서의 소감을 쓰라'는 시험문제에 '황국신민이 아니어서 소감이 없다'고 썼는데, 교장이던 장면 박사가 이를 보고 뺨을 때리며 야단을 쳤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회고에 의하면 "학교를 폐교 위기까지 몰아갈 위험천만한 내 행동을 꾸짖는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했으니 맞을 만도 했다. 장 박사님이 교탁에 계시는 동안 유일하게 손찌검을 한 학생이나 아닐까 싶다."고 추억하였다. 하지만 장면 박사는 버릇이 없다며 김수환 학생의 뺨을 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은 녀석인데"라고 생각했던지 그가 대구교구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떠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고 한다.



◀ 교장 재임시절의 장면 박사

1946년 장인보 선생의 권유와 노가남 대주교의 추천으로 천주교 대표로 미군정 자문기관 민주위원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기 전까지 장면 박사는 교육과 종교운동을 통해 민족의 미래에 투자해 온 교육자였다.

"나라에 있어서 청소년을 교육한다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은 없다. 교사는 국민과 세계에 장래를 결정하도록 부르심을 입을 젊은이에게 문명의 유산을 전하는 통로다. 교사는 몇 천명의 생도에 대한 그 모범과 감화로 선행의 규범을 세워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정신과 영혼을 도야하고 이에 깊은 지식과 진리의 인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지난 날에서 가장 오랜 햇수를 차지한 생활이 교편생활이다. 해방이 되는 해까지 거의 이십 년이란 세월을 변함없이 후세의 청년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의 대부분이 교단에서 늙어갔다. 나의 청춘도 교단에서 흘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 싶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에서 성장한 교육자이면서 정치가인 장면(張勉) 박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장면 박사를 정치가로서 알고 있지만,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장면 박사는 천주교의 민족교육자였다. 여기서는 교육자로서의 장면 박사의 면모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식을 넘어 지혜를 건지는 곳_인천어린이과학관



지식을 넘어 지혜를 건지는 곳

Zoom Incheon

인천어린이과학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즈음입니다. 경제가 나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들 합니다. 경제가 좋나쁘다 따지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저로서는 이런 세상물정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짧아도 5년, 10년 정도는 경제가 지금과 비슷할 듯 하기 때문이지요. 저성장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소비수준은 높아졌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욱 큰 문제는 좋아지는 것의 기준을 돈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찾지 않는 한 집단우울증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떠난 길, 길에게 길을 묻고자 걸은 12개월, 마지막으로 들린 곳. 인천의 진산(鎭山) 계양산 자락에 있지요. 올해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과학을 넘어서 감성을 깨우는 곳. 인천어린이과학관입니다.

과학은 멀리 있지 않고 생활 속 어디에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호기심이 위대한 과학자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꼬마 뉴턴이자 어린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꿈을 키워주는 상상발전소.

이런 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1층에는 기획전시실, 과학도서관, 강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더 띄는 건 1층 가운데에 앉혀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푸근함, 그 이상 어떤 과학과 화려함이 필요할까요? 2층과 3층은 다섯 가지 마을로 구분하고 있지요.

무지개 마을과 인체마을은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좋아할 듯합니다. 물방울을 만들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모래놀이를 하고, 나무구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체마을은 몸, 건강, 탄생을 주제로 꾸며 놓았지요. 환경오염으로 힘들어하는 지구를 구하자, 지구마을. 자동차와 비행기는 어떻게 움직일까, 도시마을. 모두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3층에 있는 비밀마을은 초등 고학년에게 알맞을 듯합니다. 만물의 이치, 수와 도형의 비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옥상 산돌박물관 문을 열면 뻥뻥한 침엽수, 이끼류, 펭귄, 새들이 멋들어진게 어우러지는 벽화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옥상에 앉아 계양산을 바라봅니다. 청량산 인천시립박물관, 수도산달동네박물관, 강화 소리박물관, 단청박물관..... 헤아리니 정말 이번이 12번째입니다. 길을 마쳐야 할 때입니다. 홀로 길을 걷는 나그네는 하루에 짐을 두 번 싣는다. 저녁에 쉼터 여관방에 들어서며 다짐합니다. 나 이제 길을 끝내리. 하지만 아침 햇살에 어제의 다짐은 말끔히 지워집니다. 끝냄과 출발의 짐을 싸는 반복이 우리네 일상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과학관을 나서는 길이 뿌듯합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네모바퀴 자전거를 마을에 새겨두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습니다. 네모바퀴 자전거가 부드럽게 굴러가려면 길이 현수 모양이어야 합니다. 현수(懸垂)는 줄의 양끝을 잡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형태이지요. 현수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모바퀴와 울퉁불퉁한 길이 따로 있다면 쓸모없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겠지만 돌이 만나서 천하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올 한 해가 박물관이라는 점(點)을 중심으로 하는 인연이었다면, 내년에는 선(線)을 타고자 합니다. 인천의 골목과 길을 찾아 떠나고자 하는 게지요. 어려운 세상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밝힙니다. 우리는 어쩌면 네모바퀴와 울퉁불퉁길 신세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연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석종수, 장순지, 조승현 세 사람과 같이 한 지난 일 년, 행복한 동행이었기를 바랍니다.





글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석중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박물관 옆 맛집 인심 한 점, 진심 한 점



글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사진 석중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동지를 지나 본격적인
맹추위의 기세가 여간해선 꺾일 것
같지 않은 요즘, 누구나 알고 있는 대로 뇌기능을
돕는 DHA 성분이 풍부한 참치는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먹거리로 썩 관심은 메뉴가 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참치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해 간장 기능이 강화되고, 불포화지방산도 함유돼 있어 혈전예방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

인천어린이과학관과 가까운 병방동, 병방시장 입구에 위치한 '산(山)참치'는 테이블 세 개가 전부인
작은 참치집이다. 그만큼 정겹고, 편안한 공간이다. 고급 참치집은 아니지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질 좋은 참치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장님의 훈훈한 인심과 배려가 '단골'을
부르는 집이다. 산(山)이란 이름은 일본 참치집에 산이란 단어가 많이 붙고, 참치집 위치도, 넓게
보면 계양산자락에 닿아 있어 이름짓게 되었다고 한다. 문을 연 지는 2년밖에 안됐지만, 멀리서도
찾아오는 단골들이 꽤 많다고.



주머니 사정에 맞춰 진, 선, 미 중에 골라 주문하면 다양한 참치를 맛볼 수 있는데, 우선 따뜻한 참치죽과 순한 미소된장국을 먹고 있으면, 참치가 부위별로 올려진다.

참다랑어 가마도로, 꼬리살, 눈다랑어 가마도로, 황새치, 볼살 등을 차례로 맛볼 수 있는데, 여느 참치집과 달리 처음부터 기름장을 주지 않는다. 기름장을 찍어 먹게 되면 참치 고유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실장님의 지론이다. 대신 고추냉이를 참치에 살짝 얹어 간장을 찍어먹으라고 권한다. 과연 기름장맛이 감돌던 짜고 고소한 맛이 아닌, 참치 본연의 풍미가 느껴졌다. 그리고, '산(山)참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는 조미김을 주지 않고, 마른 김을 내준다. 역시 짠맛에 제대로 된 참치맛을 못느낄까봐서다. 역시 마른김에 싸서 먹는 것이 담백했다. 마른김에 참치와 무순, 단무지, 락교, 절인 생강을 넣고 싸먹으면 재료마다마다의 맛이 더 잘 느껴지고, 아니면 목은지에 싸먹어도 맛있다. 앞으로 다른 참치집에 가더라도 마른김을 요구할 작정이다. 장성준 실장은 덧붙인다. "다른 참치집에서는 처음부터 좋은 부위를 내놓지 않다가 어느 정도 술이나 참치를 드신 이후에 서비스라고 좋은 부위를 내놓기 마련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거나 취기가 올라서는 좋은 부위의 참치라도 제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좋은 참치 부위부터 올려드립니다." 고집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얘기다. 중간중간의 느끼함은 계란찜이나 참치갈비 등으로 잡고, 질 좋은 참치 부위를 맛볼 때는 절인 생강을 한점 먹은 후에 먹으면 참치맛을 정확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인상적인 참치는 뇌부위라는 볼살. 마치 한우 마블링을 보는듯한 고운 자태를 뽐내는데, 입에서 녹여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입안에 넣어보니 아이스크림이나 사베트처럼 사르르 녹아내린다. 또, 황새치 아가미살은 그 위에 참치내장젓갈을 올려주는데, 식감이 좋고, 모한 매력이 있다. 마지막 화룡점정은 참치 오도로. 5만원에 10점 정도가 나온다는 귀한 부위인데, 고운 선홍색을 띄며 고유의 향이 있고, 살짝 기름지지만 달콤하기까지한 뒷맛이 값어치를 증명해준다. '산(山)참치'는 12시에 문을 열지만, 사실상 영업은 오후 4:30부터 시작한다. 이유는 참치 작업을 준비하는 것. 손님이 먹기 좋을 정도의 해동을 시켜두는 시간이 네 시간이라는 것.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고, 맛있고 질 좋은 부위를 비용에 맞춰 영업하는 것. 맛있는 참치를 내놓고 만족도 높은 집이 되는 것이 바람이라는 장 실장의 말처럼, '산(山)참치'는 따뜻하고, 양심적이며, 진심이 있는 식당이다.



'산(山)참치'는 매주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며, 4:30~새벽1시까지 영업한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즈음입니다. 경제가 나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들 합니다. 경제가 좋다면 좋지만 따지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저로서는 이런 세상물정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큰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스웨덴 푸투름(미래)학교

도시경영연구부 한미경 초빙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북서쪽 50킬로미터에 위치한 Håbo 지역의 푸투름 학교(Futurum Framtidens Skola)는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1999년 낡은 학교를 개조하여 새 출발한 학교이다. Futurum(미래, 영어로 Future)이라는 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학교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된 학교이며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새롭고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성공을 거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개별적이며 종합적인 학습방법으로 6세부터 16세까지(우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푸투름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러한 푸투름의 교육과정은 소위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푸투름의 교육 과정은 우리에게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학교 안의 작은 학교

푸투름 학교는 학년의 구분이 없으며, 전교생을 하급반(유치원~5학년)과 상급반(6학년~9학년)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팀에게 색깔을 부여하고 10년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도 하며 때로는 역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각각의 조가 생활하는 생활공간의 건물에 그들에게 부여된 색깔을 칠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로그북(Logbook)

로그북은 목표, 계획, 실천, 평가 등을 적는 것으로써 학생의 종합적인 발달계획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로그북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삼자 대화 때 사용하는 삼자대화로그북 그리고 교사로그북이 있으며, 요일별 오전과 오후의 계획 및 주별 목표와 과목별 계획을 적는 학생로그북이 있다. 교사들은 멘토의 역할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컨트롤 해주며, 중간 중간 뒤쳐진 아이들을 독려한다.



시차등교제

푸투름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등교할 수 있다. 즉 보통 9시에 일과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은 8시부터 9시까지 시차등교제를 실시한다. 오전에는 당일 학습계획을 세워 교사에게 점검을 받고 개별학습을 한다. 오후에는 소그룹 단위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 역시 각자 사정에 따라 신축적이다.

이처럼 학교혁신국제심포지엄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푸투름 학교의 학생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관심분야를 탐구해 나간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는 푸투름 학교의 교육을 "21세기형 교육"이라고 부른다. 세계적으로 교육열과 교육수준은 가장 높지만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이러한 푸투름 학교의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 중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발전방안

인천시 중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

도시경영연구부 배은주 연구위원

교육이 발전하면 그것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발전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의 구도심 지역인 중구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중구는 다양한 도심정비사업으로 도시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감소된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거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적 문제 또한 중요하다. 특히, 교육열이 강한 우리의 교육문화에서 볼 때 자녀교육의 문제는 이미 지역 주민들의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구의 학교교육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인천의 중구가 가지는 대표적인 구도심의 특징은 "떠나는 지역"이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이런 중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외부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중구의 교육 여건 SWOT 분석>



중구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시켜 지역과 학교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제시해 보면, 중구청 주도 하에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고, 중구의 근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활용하는 교육재능기부 지역네트워크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의 약점과 위협요인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성장을 위해 상담을 체계화·전문화하고, 학부모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고 예체능 계열 프로그램은 거점학교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중구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중구의 교육문화를 혁신시키려는 노력을 수반할 때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이다.

교육이 발전하면 그것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발전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의 구도심 지역인 중구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나호 보기

2011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교육수준 현황

도시경영연구부 한미경 초빙연구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이다. 실제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교육 통계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각각 79%, 37%이다. 이는 OECD 평균 71%, 28%와 비교해볼 때 높은 수치이다. 실제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25~44세까지의 통계를 보면, 95%이상의 이수율을 보인다. 이는 OECD 평균 77.5%와 비교해보아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교육열을 반영하듯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총 65개국 만 15세 학생 약 4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 PISA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최상위의 성취수준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 인천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201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 201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을 차지한 비율은 국어 83.2%, 수학 80.2%, 영어 89.6%임.
- 인천 지역 전국 순위를 살펴보면 국어 8위, 수학 8위, 영어 7위로 전체 16개 시도 중 중간 정도의 수준임.

초6	국어			수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1.9	17.3	0.8	79.9	18.7	1.4	88.6	10.5	0.9
부산	86.1	13.5	0.4	84.4	14.9	0.7	91.2	8.3	0.5
대구	88.0	11.6	0.4	85.4	14.0	0.6	92.3	7.4	0.3
인천	83.2	16.2	0.6	80.2	18.8	1.0	89.6	9.9	0.5
광주	79.4	19.8	0.8	77.0	21.7	1.3	86.1	12.7	1.2
대전	87.3	12.2	0.5	83.6	15.6	0.8	90.8	8.8	0.4
울산	82.3	17.1	0.6	79.8	19.2	1.0	91.1	8.3	0.6
경기	80.5	18.8	0.7	76.6	22.2	1.2	86.2	13.0	0.8
강원	79.9	19.3	0.8	73.4	25.1	1.5	83.0	16.0	1.0
충북	86.0	13.6	0.4	86.3	13.3	0.4	92.3	7.4	0.3
충남	83.8	15.7	0.5	79.8	19.3	0.9	87.7	11.8	0.5
전북	83.0	16.3	0.7	77.6	21.2	1.2	86.5	12.5	1.0
전남	80.5	18.8	0.7	77.3	21.6	1.1	86.9	12.2	0.9
경북	85.3	14.2	0.5	83.2	16.0	0.8	89.1	10.4	0.5
경남	86.6	13.1	0.3	84.9	14.6	0.5	91.3	8.4	0.3
제주	82.7	16.8	0.5	82.1	17.3	0.6	86.5	12.7	0.8

중학교

- 중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85.4%로 전국 2위이고, 과학도 69.3%로 전국 2위이며, 사회 역시 71.3%로 3위를 차지하여 국어와 과학, 사회에서 타시도에 비해 높은 학력 수준을 나타냄.
- 반면 수학과 영어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모두 9위를 차지하여 학력이 낮게 나타남.

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79.8	18.3	1.9	58.6	32.2	9.2	65.0	30.2	4.8	56.5	35.9	7.6	72.7	25.4	1.6
부산	80.5	18.1	1.4	61.4	31.2	7.4	66.8	29.8	3.4	59.6	35.1	5.3	71.1	27.5	1.4
대구	86.0	13.2	0.8	70.5	25.1	4.4	72.5	25.0	2.5	69.2	27.9	2.9	77.1	22.1	0.8
인천	85.4	14.0	0.6	71.3	25.1	3.6	66.2	30.7	3.1	69.3	28.5	2.2	71.9	27.2	0.9
광주	82.3	16.1	1.6	62.5	30.5	7.0	67.1	29.6	3.3	57.4	36.6	6.0	73.6	25.4	1.0
대전	83.6	15.4	1.0	70.8	24.6	4.6	66.7	30.1	3.2	67.6	29.3	3.1	73.7	25.4	0.9
울산	84.0	15.2	0.8	68.8	28.5	4.7	69.7	27.3	3.0	65.4	31.6	3.0	74.4	24.7	0.9
경기	79.9	18.5	1.6	60.8	32.0	7.2	61.4	34.0	4.6	59.5	34.9	5.6	68.5	30.0	1.5
강원	80.3	18.2	1.5	64.4	28.7	6.9	58.5	36.2	5.3	60.7	33.5	5.8	65.1	33.1	1.8
충북	83.7	15.5	0.8	71.4	24.9	3.7	66.7	30.4	2.9	68.5	29.2	2.3	72.9	26.1	1.0
충남	80.0	18.8	1.2	67.6	27.2	5.2	58.6	37.4	4.0	61.7	34.6	3.7	64.6	34.2	1.2

전북	81.3	16.9	1.8	65.5	27.8	6.7	63.2	32.3	4.5	60.1	34.1	5.8	66.9	31.5	1.6
전남	76.7	21.3	2.0	58.1	33.3	8.6	58.2	36.7	5.1	53.9	39.1	7.0	62.9	35.3	1.8
경북	84.3	14.5	1.2	71.1	24.5	4.4	69.8	27.2	3.0	68.3	28.5	3.2	73.4	25.7	0.9
경남	81.4	17.4	1.2	64.0	30.2	5.8	64.3	32.2	3.5	60.3	35.5	4.2	70.1	28.7	1.2
제주	85.3	13.4	1.3	75.8	19.9	4.3	71.5	25.1	3.4	69.4	26.4	4.2	75.7	23.1	1.2

☞ 고등학교

○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88.1%, 수학 84.5%로 전국 11위를 보이는 반면, 영어는 87.4%로 전국 6위를 차지함.

고2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0.4	16.1	3.5	75.3	18.1	6.6	80.0	15.0	5.0
부산	89.1	9.8	1.1	86.7	10.6	2.7	86.6	10.8	2.6
대구	90.8	8.2	1.0	87.0	10.5	2.5	88.4	9.5	2.1
인천	88.1	11.0	0.9	84.5	12.7	2.8	87.4	10.5	2.1
광주	91.8	7.2	1.0	89.5	8.8	1.7	90.7	7.8	1.5
대전	90.4	9.0	0.6	88.7	9.3	2.0	90.3	8.2	1.5
울산	89.7	9.7	0.6	86.7	11.0	2.3	87.7	10.5	1.8
경기	81.1	16.0	2.9	74.5	19.4	6.1	78.4	16.5	5.1
강원	84.7	13.2	2.1	79.6	15.9	4.5	82.6	13.9	3.5
충북	91.3	7.9	0.8	89.3	8.7	2.0	90.2	8.2	1.6
충남	88.2	11.1	0.7	86.1	11.6	2.3	86.9	11.0	2.1
전북	88.3	10.4	1.3	84.6	12.1	3.3	85.6	11.3	3.1
전남	84.3	13.9	1.8	81.9	14.3	3.8	81.0	15.1	3.9
경북	88.5	10.7	0.8	86.1	11.2	2.7	86.9	10.8	2.3
경남	86.7	12.3	1.0	83.2	13.4	3.4	83.6	13.3	3.1
제주	88.3	10.2	1.5	85.5	11.1	3.4	87.1	10.1	2.8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이다. 실제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교육 통계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각각 79%, 37%이다. 이는 OECD 평균 71%, 28%와 비교해볼 때 높은 수치이다.